1.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

폴리스의 자유민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참정권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을 들자면, 첫째, 그것은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정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에 직접 참석하고 교대로 관직을 맡으면서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했다. 둘째, 아테네 민주정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이 참여한 것이고 자유민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는 배제된 것이었다. 아테네인이 민주정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남성시민들 만이 누리는 집단적 자유였으며, 인간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 자유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대세계 다른 지역의 비민주적 정치상황과 비교할 때, 아테네 남성시민들이 특유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공동 운영한 경험은 민주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 만하다.

1.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간의 종군, 전쟁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 대토지 겸병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무산시민이 되어 로마로 몰려들면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영농민은 농업적인 로마 사회의 중산층이었고, 또한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원로원과 로마인민’의 조화 속에 추진되어 온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1. 밀라노 칙령의 배경을 설명하라.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0퍼센트가량이었는데 특히 동방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은 축소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다. 특히 그의 적이었던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기로 한 것이다.

1. 게르만의 이동의 배경을 설명하라.

게르만족이 이동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인구의 증가, 토지에 대한 필요 등이 언급되지만, 이동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다면 이동의 시기나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계기로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훈족이 흑해 북쪽에 정착해 살고 있던 고트족을 압박하자 376년에 테르빙족을 필두로 그레우퉁족 등 고트족 연맹세력이 줄지어 다뉴브 강을 건너려 시도했고, 일부만을 제국 내로 받아들이려던 발렌스 황제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로마 제국은 병력을 대거 동방으로 이동시켰기에 힘으로 게르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결국 제국의 기대와 달리 여러 고트족 연맹세력은 제국의 동쪽 영토에 진입하게 된다.

1. 중세도시의 성격을 말하라.

서유럽에서 원거리 무역의 부활로 인해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고 기존 도시들은 활력을 되찾았다. 이와 동시에 성직자, 귀족과 농노로 구성된 중세 신분사회에 ‘상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했다. 고대 도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업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중세 대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세 대학은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문명의 등불을 근근이 보존해오던 수도원과 성당 학교에 뒤이어 지식 생산과 전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학문의 중심이 종교기관에서 세속적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지적 활동의 저변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대학과 더불어 지적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이 새로운 신분상승의 통로로 구실 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일이었다.

1. 봉건제의 위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라.

봉건제를 이루고 있는 두 축은 영주제와 주종제이다. 먼저 영주제의 몰락이다. 1300년경에 유럽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는데, 흑사병으로 이러한 추세가 훨씬 급격해졌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 및 경작지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영주 수입의 위기가 찾아왔다. 게다가 영주는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대신 경작하는 농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영주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다음은 주종제의 몰락이다. 주종제의 몰락은 왕권 강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왕과 교황 간의 권력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로서 십자군 전쟁으로 왕권의 경쟁자였던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어 왕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 교역과 도시의 발달로 성장한 상인층은 상권의 확대를 위해 통일 국가를 지향했다. 이 점에서 왕과 일치된 이해관계를 가져 왕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되어 왕권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주종제가 몰락하게 되었고 이는 봉건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1. 유럽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 이유를 말하라.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부를 쌓고, 그 부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인들에게 부를 가져다줄 것으로 여겨졌던 상품은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였다.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컸고 값도 비쌌다. 원산지에서 싼 값으로 매매되는 향신료가 유럽에서 비싸게 팔린 이유는 비싼 운송료 때문이었는데 항로를 개척해 훨씬 안전하고 저렴한 뱃길을 통해 대량으로 구입해 들여올 수만 있다면 큰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열망이 항해를 부추긴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는 종교적 열정, 동방에 대한 호기심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1. 르네상스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라.

르네상스의 개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은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 체계나 신조라기 보다는 고전연구에 입각한 교육, 문화 운동이었다.

폴리스의 자유민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참정권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그것은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민주정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직접 민회, 시민법정에 참석했고, 교대로 관직을 맡으며 국가를 공동 운영하였다. 둘째,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이 참여한 것이고 자유민 여성, 외국인, 노예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이 추구한 자유는 남성 시민들만 누리는 자유였으며 일반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였다. 하지만 고대세계 다른 지역의 비민주적 정치상황과 비교할 때 아테네 남성들만이 특유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공동 운영한 경험은 민주정 역사에 중요한 전례가 될 만하다.

계속되는 종군, 전쟁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 대토지 겸병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무산시민이 되어 로마로 몰려들게 되면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영농민은 농업적인 로마 사회의 중산층이었으며,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원로원과 로마인민의 조화속에 추진되어 온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0퍼센트 가량이었으며, 특히 동방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컸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 계속된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별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 기독교 세력을 협력자로 받아드리는 편이 나았다. 특히 그의 적이었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기독교를 박해해 왔는데 그를 물리치고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다.

게르만이 이동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인구의 증가, 토지의 필요 등이 언급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으면 이동의 시기나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계기로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훈족이 흑해 북쪽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고트족을 압박하자 테르빙족을 필두로 그레우퉁족 등 고트족 연맹세력이 줄지어 다뉴브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일부만 제국으로 받아드리려던 황제와 갈등을 맺었다.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병력을 대거 동방으로 이동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고트족을 막을 순 없었다. 결국 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고트족 연맹이 로마 제국의 동쪽에 진입하게 된다.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활성화되며 도시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농노, 성직자,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던 중세 신분사회에 ‘상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했다. 고대 도시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작용했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문명의 등불을 근근이 보존해오던 수도원과 성당 학교를 뒤이어 지식 생산과 전수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학문의 중심이 종교 기관에서 세속적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지적 활동의 저변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대학과 더불어 지적 노동을 대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이 신분상승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봉건제를 이루고 있는 두 축은 영주제와 주종제이다. 먼저 영주제의 몰락이다. 1300년 이후 유럽은 이미 인구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흑사병으로 이러한 추세가 급격해진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와 경작지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영주 수입의 위기가 찾아왔다. 게다가 영주는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를 대신 경작해주는 농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주의 권한이 약해지게 된다. 다음은 주종제이다. 주종제의 몰락은 왕권 강화로 설명된다. 왕과 황제의 권력은 반비례하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 황제의 권력이 실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도시의 발달로 성장한 상인층이 상권의 확대를 위해 통일 국가를 지향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왕과 이해관계가 맞아 상인들이 왕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되어 왕권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주종제와 영주제 둘 모두 몰락하며 봉건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부를 쌓고, 그 부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인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겨졌던 상품은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였다. 중세 유럽에서 향신료에 대한 수요는 컸고 값도 매우 비쌌다. 생산지에서 싸게 거래되는 향신료들이 유럽에서 비싼 이유는 비싼 운송료 때문이었다. 따라서 더 안전하고 저렴한 뱃길을 개척해 향신료를 대량으로 들여올 수 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열망이 유일하게 작용한 동기는 아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종교적 열정, 동방에 대한 호기심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르네상스는 개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의 부활은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 체계나 신조 라기보다는 고전 연구에 입각한 교육, 문화 활동이었다.

자유민 남성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참정권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으로는 첫째, 그것은 폴리스라는 소규모 국가에서나 가능한 민주정이었다. 일반 시민들이 민회와 시민법정에 참석했으며, 교대로 관직을 맡으면서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했다. 둘째,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이 참여했고, 자유민 여성, 외국인, 노예는 배제되었다. 아테네인들이 민주정에서 추구한 자유는 자유민 남성들만 누리는 자유였으며 일반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고대 국가의 비민주적인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아테네 남성들이 특유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공동 운영한 경험은 민주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례가 될 만하다.

계속되는 종군, 전쟁으로 황폐화된 토지, 대토지 겸병으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노들이 무산시민으로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영농민은 농업이 중심인 로마 사회의 중산층이었고, 로마 군사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원로원과 로마인민의 조화 속에 추진되어 온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인구의 10퍼센트 가량이었는데, 특히 동방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컸다. 누구누구 이래로 계속되어온 기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력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별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편이 나았다. 특히 기독교를 박해해온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를 물리치고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다.

게르만의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토지의 필요 등이 언급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없었다면 이동 시기나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로는 중앙아시아에 유목민으로 알려진 훈족이 흑해 북쪽에서 생활하던 고트족을 압박했다. 고트족 연맹세력은 줄지어 다뉴브 강을 건너길 시도했고 일부만 제국으로 받아드리려던 로마의 황제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로마는 병력을 대거 동방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무력으로 게르만족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기대와는 달리 고트족 연맹세력은 로마의 동쪽 영토에 진입하게 되었다.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크게 활성화되며 도시는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농노, 성직자,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세 신분사회에 ‘상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했다. 고대 도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문명의 등불을 근근이 밝혀오던 수도원과 성당 학교를 뒤이어 중세 대학은 지식 생산과 전수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학문의 중심이 종교기관에서 세속적인 중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지적활동의 저변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적 노동을 대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계층의 지식인 유형이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이 새로운 신분상승의 통로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봉건제는 주종제와 영주제가 두 축을 이룬다. 먼저 영주제의 몰락이다. 1300년 이후 유럽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을 맞았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더욱 급격화 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 및 경작지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영주 수입의 위기로 이어졌다. 게다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주는 토지를 대신 경작하는 농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영주의 권한이 더욱 약화된다. 다음은 주종제이다. 주종제의 몰락은 왕권 강화로 설명된다. 왕의 권력은 황제의 권력과 반비례하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교역과 도시의 발달로 성장한 상인층이 상권의 확대를 위해 통일국가를 지향했고, 이 부분에서 왕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왕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자가 되어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주종제와 영주제가 몰락하며 이는 봉전제의 위기로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부를 쌓고, 부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인들에게 부를 가져다줄 상품으로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였다. 유럽에서 향신료는 수요가 컸고 값도 매우 비쌌다. 생산지에서 싸게 거래되는 향신료가 유럽에서 비싼 이유는 비싼 운송료 때문이었다. 따라서 더욱 안전하고 저렴한 뱃길을 개척해 대량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려는 종교적 열정, 동방에 대한 호기심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르네상스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은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 체계나 신조 라기보단 고전 연구에 입각한 교육, 문화 운동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은 자유민 성인 남성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정권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을 들자면 첫째, 그것은 폴리스라는 작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직접 민주정이었다는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에 직접 참석했고 교대로 관직을 맡으며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둘째,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이 참여했고 자유민 여성, 외국인, 노예는 배제되었다. 민주정의 시민들이 추구한 자유는 성인 남성들만 누렸고 일반 개개인이 누리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고대국가들의 비민주적인 정치상황과 비교할 때 아테네 시민들이 국가를 공동으로 운영한 경험은 민주정 역사의 중요한 전례로 볼 수 있다.

장시간의 종군,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토지, 대토지 겸병으로 토지를 잃어버린 농노들이 무산시민이 되어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영농민은 농업사회인 로마의 중산층이었고,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영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공화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유럽 전 인구의 10퍼센트 가량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특히 동방 지역의 비율은 더욱 높았다. 오랫동안 기독교 박해를 시행했지만 그 세력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 그들을 협력자로 받아드리는 편이 나았다. 또한 갈레리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들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기로 한 것이다.

게르만 이동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 토지의 필요 등이 언급되지만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계기가 없었다면 그 이동 시기나 방식이 달랐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훈족이 흑해 북쪽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고트족을 압박하여 376년 이후 고트족 연맹세력을 조직해 다뉴브 강을 건너려 시도했고, 일부만 제국으로 받아드리려던 로마 황제와 갈들을 빚었다. 당시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로마 제국은 병력의 대부분을 동방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무력으로 고트족을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기대와 달리 게르만 족이 제국의 동쪽 영토에 진입하게 되었다.

농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크게 활성화됨으로써 도시는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농노, 귀족, 성직자로 이뤄진 중세 신분에 상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도시는 이들의 활동 근거지로 작용했다. 고대 도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었다면 중세 도시는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이라는 성격이 있다.

봉건제는 주종제와 영주제로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먼저 영주제의 몰락이다. 1300년대 이후 유럽 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을 맞았는데 흑사병이 발생하여 더욱 가속하게 되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 및 경작지 감소를 가져왔다.

르네상스의 성격은 개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의 부활은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대 로마, 그리스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시대상황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 체계나 신조가 아니라 고전 연구에 입각한 교육, 문화 운동이었다.